

# 학습형 일자리를 아시나요



**임 경 수** 교수의  
**라이프롱 디자인**

인간을 창조한 상제가 또 인간에게 먹고 살 수 있는 일을 만들어 주기 위해 100명의 하제들을 불러 모았다. 99명의 하제에게 직업을 나눠주며 인간에게 그 일을 알려주도록 하였으나 100번째 하제에겐 줄 직업이 남아있지 않았다.

직업 없이 세상에 내려 온 100번째 하제는 마땅히 할 일이 없다보니 사람들을 만나면 '삶이란 무엇인가?', '어떻게 사는 게 올바른 것인가?'와 같은 질문만 하고 다녔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놀랍게도 100번째 하제를 따르는 사람들이 생겼다. 하제가 다시 돌아간 후에도 이 무리들은 질문하는 일을 하게 되었고, 다른 사람들이 수입을 얻어서는 질문하는 이들의 생계를 도왔다.

현대교육학개론에 실린 교사론의 앞이야기이다. 이야기를 쓴 부산교대 박천환 교수는 이 무리들을 일컬어 '질문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했다. 오늘날 가르치는 사람, 즉 교사라는 직업을 설명하기 위함이다.

필자가 초등학교 다닐 때인 70년대에

흑백TV로 사람들을 불러 모았던 미드(미국드라마의 약칭)가 있었다. '하버드대학의 공부 벌레들'(원제: The Paper Chase)이다. 이 드라마의 인기 비결은 내로라하는 수재들의 오금을 저리게 한 킹스필드 교수에 있었다.

킹스필드 교수의 끊임없는 질문에 답변하지 못하고 째짤매는 수재들을 보면서, 답변을 만들기 위해 도서관에 잠입하고, 밤을 지새우다 지각을 하고, 그러고도 답변을 못해 화장실에서 괴성을 지르는 장면들을 보면서 우리는 학습의 흥미진진함에 빠져들었다.

이 썸에서 이 글의 주제인 '학습형 일자리'를 논해 보자. 일은 본래부터 학습을 통해 이루어지고, 학습과 함께 발달한다. 요즘엔 이를 워크플로우 러닝이라고 한다. 한마디로 일과 함께 하는, 일의 흐름 속에서 학습한다는 점에서 일병행학습이라고 한다.

학습형 일자리는 이와 같이 학습과 일 자리가 연계되었으니 융복합임에 틀림없다. 융복합의 방법에 따라 그 형태나 내용이 달라질 것도 분명하다. 그러면 융복합의 경우의 수를 따져보자.

첫 번째는 학습을 통해 기존 일을 영위하는 것이다. 평생교육기관의 고용연계 프

그램들이 모두 여기에 해당된다. 전기·전자, 기계·설비, 자동차 분야는 학습이 잘 이루어지면 고용으로 연계되기 쉽다고 한다.

한국폴리텍대학의 경우 이 분야 취업률이 80%를 넘는다. 그만큼 일자리 공급이 많다보니 수요처가 많고, 학습하겠다는 사람들의 경쟁률도 높은 편이다. 이 경우는 융합이 아니라 복합이다. 기존 방식의 학습과 기존 형태의 일자리가 결합되는 것이다.

다음으로 학습을 통해 그 다음 학습자들을 가르치는 일이 있다. 'learner to teacher'라는 색다른 융합모델이다. 학습자에서 교수자가 된다는 것은 인간의 자아 실현 욕구에 가장 충실한 것이다. 누구든 자식에서 부모가 되고 싶고, 학생에서 교사가 되고 싶은 것처럼 학습한 것을 가르치고 싶어 한다.

국가의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은 학습형 일자리를 '마을주인이 중심이 된 지역 인재 양성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프로그램을 통해 양성된 인재들을 지역주민들을 위한 강사로 취업시키는 새로운 형태 일자리 창출 모델'이라고 설명한다. 한마디로 배워서 가르친다는 환류형 모델이다. 도전에 불만만 일이다.

/건국대학교 글로벌캠퍼스 교수·성인학습지원센터장

## 부동산 거래절벽



**김 대 환**  
(건설부동산부)

최근 고금리 지속과 정부의 대출 조이기 등이 아파트 매매시장에 영향을 주면서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크게 줄었다. 저렴한 급매물이 대부분 소진되고,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연 7% 수준까지 오르면서 주택 매수세도 위축된 것.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10월 아파트 매매건수(6일 기준)는 1533건으로 9월(3361건) 대비 반토막 이상 줄었다. 매매거래 신고 기한(30일)이 아직 남아 있지만, 현재 추세를 감안하면 3000건대 진입도 안 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부동산 시장의 선행지표인 거래량이 주

춤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아파트 매물은 8만건에 육박했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이달 3일 서울 아파트 매매 물량은 8만452건으로 집계되면서 2020년 10월 집계 이래 역대 최다 기록을 경신했다. 전문가들은 매수자들의 관망세로 매매 물건이 쌓여 부동산 시장의 '숨고르기' 국면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한다.

거래 공백으로 인한 나비효과로 부동산 공인중개업은 불황을 겪고 있다. 실제로 금융권의 대출 제한과 고금리 등으로 시장 침체가 이어지며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의 인기는 하락세다. 오는 28일 실시되는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의 응시자 수는 29만 2993명으로, 전년(38만 7705명) 대비 24% (9만 4712명)나 줄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따르면 지난달까지 누적 폐업 사무실은 1만 586곳, 휴업은 1028곳이다. 같은 기간 개업 사무실은 9611곳으로 폐·휴업 사

무실보다 2003곳 부족하다. 개업자와 폐·휴업자가 역전된 것은 관련 집계기 시작된 이후 처음이다.

업계에서는 시중은행 주택담보 금리가 올해 연말 8%를 넘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부동산 시장의 위축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 우려도 나온다.

정부는 지난 7월 서민들의 내 집 마련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50년 만기 주택담보 상품을 내놨다. 시장 활성화를 위한 완화책은 결과적으로 가계부채를 사상 최대치로 경신시켰다. 정부는 뒤늦게 특례보증자리를 사실상 중단시켜 가계대출 억제에 나섰다. 가계부채 증가세는 여전하다.

정부가 대출 옥죄기에 나선 만큼 매수 심리 회복은 쉽지 않아 보인다. 총선이 5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부의 잦은 정책이 실수요자들만 고통을 받고 있다.

/kdh@metroseoul.co.kr

오늘의 운세 11월 7일 (음 9월 24일) <http://www.saju4000.com>

-  **36년생** 감정의 기복이 심해지니 멀리 있는 길은 나서지 마라. **48년생** 어항 속 물고기처럼 변화 없는 하루. **60년생** 김씨 친구가 행운을 준다. **72년생** 현명한 사람은 늘 배우며 산다. **84년생** 물건은 새것이 좋고 사람은 옛사람이 좋다.
-  **37년생** 헤드기 직전이 가장 어두운 밤이니 절망은 금물. **49년생** 결과가 좋으니 모든 것이 편하다. **61년생** 승진으로 어두운 터널이 열린다. **73년생** 신념으로 일을 추진하자. **85년생** 원망하기보다는 마음에서 긍정에너지를 선순환시키도록.
-  **38년생** 여우가 죽을 때는 제가 살던 쪽으로 머리를. **50년생**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62년생** 성공이 끝이 아니니 교만하지 마라. **74년생** 늘 책을 놓지 않으면 장래가 보장. **86년생** 응어리진 상황을 명상으로 환기를.
-  **38년생** 여우가 죽을 때는 제가 살던 쪽으로 머리를. **50년생**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62년생** 성공이 끝이 아니니 교만하지 마라. **74년생** 늘 책을 놓지 않으면 장래가 보장. **86년생** 응어리진 상황을 명상으로 환기를.
-  **40년생** 근심하는 빛이 얼굴에 가득. **52년생** 리더십의 근본은 솔선수범이다. **64년생** 초대받은 손님으로 환대를 받으니 기쁨. **76년생** 무더위가 가면 그늘 덕은 잇는 법이니 마음을 비워라. **88년생** 연인에게 기대를 접으니 마음은 편하다.
-  **41년생** 마른눈에 물들어 오듯이 일이 잘 해결. **53년생** 좋은 것을 포기하고 마음이 아프다. **65년생** 가까운 사이일수록 예의를 지켜라. **77년생** 부모님의 건강과 안부를 챙겨야 복을 받는다. **89년생** 모두 가질 수 없으니 하나는 양보해야.
-  **42년생** 내일이 일동이니 햇살도 자리를 내주어야 하듯 인생길도 마찬가지. **54년생** 남의 부러움을 많이 사는 날. **66년생** 물고기를 잡으려면 그물 어망을 쳐야. **78년생** 인간은 시련 없이 성공할 수 없다. **90년생** 제사음식에서 여찬은 동쪽.
-  **43년생** 나무 손질의 익숙한 일도 실수를 하게 된다. **55년생** 회사는 전쟁터이지만 밖은 자유이니 현재에 감사해야. **67년생** 글을 여러 번 옮겨 쓰면 착오가 생긴다. **79년생** 이사준비를. **91년생** 계절에 맞춰 살아간다는 것은 순기능의 선물.
-  **44년생** 투자 권유의 상냥한 말에 넘어가지 말고 중심을 가져라. **56년생** 최선을 다하니 좋은 기회가 주어진다. **68년생** 근거 없는 소문에 휩싸이지 마라. **80년생** 돌아오지 않는 나그네 사랑은 슬픔만. **92년생** 껌질을 깨뜨리고 밖으로 나가라.
-  **45년생** 씨를 뿌리고 거둬야 하는 데 이제야 인식을. **57년생** 거기나 여기나 마찬가지. **69년생** 더위는 더위로 해결해야 한다. **81년생** 열 번 듣는 것보다 한번 보도록. **93년생** 포기하지 말고 최소한 한 가지 일이나 기술에 능통하게 실력을 쌓자.
-  **46년생** 앞던 이가 썩 빠지는 듯 개운한 날. **58년생** 생각을 바꾸면 의외의 곳에서 해답이 보인다. **70년생** 가야 할 길은 멀고 발걸음은 멀어지지 않는다. **82년생** 재물이 많아지니 신명. **94년생** 고민이 많으나 남쪽에서 귀인 상봉하여 해결책이.
-  **47년생** 매매는 초조해하지 말고 차분히. **59년생** 듣는 사람 보는 사람이 많다. **71년생** 과일을 수확하듯 노력의 면치. **83년생** 미움이 있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마음. **95년생** 이현령비현령耳聽鈴聽鑿鑿어면 사실이 이렇게도 저렇게도 해석됨.



## 김상회의四季 세상이 어지럽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으로 심란한 중에 지구의 화약고라 불리는 중동에서도 일이 터졌다. 기실 인간의 역사가 시작된 이래 부족 간 나라 간에 종교적 정치적 또는 물질적 이유 등으로 국지적 세계적 싸움과 전쟁은 쉬어 본 적이 없다. 지구 거리상으로는 멀리 떨어져 있다 해도 영향을 받지 않는 지역이나 사람이 없다. 우크라이나 전쟁만 하더라도 대표적으로 급등하는 밀가루 가격으로 전 세계의 물가는 고공 행진이다. 연이어 가스 가격과 항공료 인상 등 그 여파는 도미노처럼 연이어 영향을 끼치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에 시작된 전쟁에 버금가는 투쟁 상황에서 전 세계인들은 불안한 마음들이 가중되고 있다. 전례 없는 코로나를 겪고 늘 용광로 같은 상황에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어떤 마음이어야 할까?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은 우리나라는 유교적 측면과 함께 도교적 세계관이 함께 한다. 즉 평화로운 시대가 되었던 난세가 되었던 군자(君子)의 면모를 강조하면서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는 이것이 '조문도석사(朝聞道夕死可矣)'이다. 공자의 논어(論語) 이인(里仁) 편에 나오는 말이다.

오늘 밤에 죽는다고 하더라도 아침에 도를 들을 수 있다면 이를 기꺼이 받아들인다는 것이니 여기서 공자가 말하는 도는 진리를 말하는 것 이리라. 공자가 이르는 진리는 사람으로 태어나 존재의 실상에 대한 깨달음을 말하는 것일까, 전인적 인격을 갖춘 인격의 완성자를 말하는 것일까. 서양의 철학자 스피노자는 '내일 세상이 멸망한다 할지라도 한 그루 사과나무를 심겠다' 했다. 동서양의 인식 체계상의 의미를 두는 방향성은 다르겠지만 난세의 지혜가 필요해 보이는 요즘이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회 역학연구원 02) 533-8877 / [www.saju4000.com](http://www.saju4000.com)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김승중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206	2002년5월28일 제5304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1407호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새벽 학습

# 스도쿠365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크리노의 알고리즘을 공개합니다  
<http://www.argo9.com>

문제출제: 3X3 �도쿠 X는 가로,세로,3X3박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회색 9X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4		9				
	1		9	7		4		
4		2			7			
	7						2	6
3	8							1
		5				8		7
	3		7		4		9	
		7			2			

		4	8	3	5	7	6	
			6	4	9			
								4
	6							8
				5				9
	7							
3	6	1	9		4	2		

QR코드

할인도서

4	9	1	2	8	8	2	9	6
2	6	9	7	5	2	1	8	8
2	8	8	1	6	9	5	7	2
6	1	7	9	2	9	8	8	2
8	2	8	6	9	1	7	2	9
9	2	9	8	7	8	6	2	1
8	8	2	9	1	9	2	6	7
5	7	2	2	8	6	8	1	9
1	9	6	6	2	7	8	9	2